

'신내' 가득한 AI 대선 공약

에스프레소



조기동
경제 칼럼니스트

2000년대는 각종 '한국형' IT의 전성시대였다. 컴퓨터 운영체제(OS)나 휴대용 게임기 개발이 시도되고, 정부 주도로 진행된 와이브로(차세대 이동통신 기술·WiBro), 위피(휴대폰 인터넷 플랫폼·WIFI) 같은 굵직한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다. 국산 수입 대체품을 쓰려는 사람이 없었다. 와이브로는 국제 표준 경쟁에 밀려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위피는 휴대폰 생태계를 외판점으로 만들었다. 문제는 기술력이 아니라 방향이었다. 많은 이용자와 기업을 끌어들이야 하는 분야에서, 그저 '열심히 기술을 만들면 된다'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자본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면 됐던 추격형 성장 전략의 관성이 낡은 참사였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AI 공약을 보니 '한국형' IT들의 낡은 실패담이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중순 사실상의 첫 대선 공약으로 정부 주도 '한국형 챗GPT'를 만들겠다고 20여년 전 유행했던 논리를 답습했다. 이 후보는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

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기존 사회를 엮은 것 정도만 다르다. 다른 후보들도 피차일반이다. 100조 원 투자, 20만명 전문 인력 양성을 내세운 김문수 후보처럼 비현실적인 투입 일변도다. 이 후보 역시 숫자는 100조 원이다. 2023년 연구개발 투자는 정부와 민간을 모두 합쳐 119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의 5.0%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6.3%)뿐이고 미국·일본·독일 같은 나라는 3%대다. 인력도 마찬가지다. 전일제 근무 기준 연구원(RTE)은 49만명으로 취업자 1000명당 17.3명꼴이다. 프랑스(11.5명), 미국(10.6명)을 앞선 세계 1위다.

한국은 이미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나라다. 단순한 양적 확장이 추가 효과를 낼 가능성은 낮다. 초중등 교육부터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인력 공급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2.4%에 불과하던 2004년이나 통했을 '100조원 투자' 공약은 시대착오적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60년대 몇 안 됐던 유학파를 돌아오게 하려고 주택을 썼던 정책을 되살려오기도 했다. 게다가 연구개발 투자의 78.6%는 민

간 기업이 담당한다. 이재명 후보가 정부가 지분 30%를 소유한 AI 거대 기업 이야기를 꺼내 논란을 자초한 건, 민간이 주도하는 판에 정부가 공격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을 만드는 것 이외에 뾰족한 수단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민간 역할을 강조하는 이준석 후보도 뚜렷한 청사진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1990년대 초·중반 일원 영, 폴 크루그먼 등 경제학자들은 당시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이 생산성 향상 없이 자본이나 노동을 집중 투입한 결과라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들의 지적은 IMF 외환 위기로 현실화됐다. 대선 후보들의 AI 공약을 보면서 불안한 건 정부 주도로 생산요소 투입을 늘리는 데 골몰했던 당시 한국의 모습과 판박이여서다. 산업과 연구개발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AI 시대에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는 어디에 있을지 고민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어떻게 제대로 투자할 것인가'다. 어떤 전략으로 AI 분야의 수퍼스타 기업을 만들었는지, 기존 기업들의 적응과 변화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리고 변화에 뒤처질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교육, 과학기술 정책을 긴밀하게 엮은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너무나 신내 나는 정책 대신,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이유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81]

작품은 없고 사람만 있는 전시회

2010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티노 세갈(Tino Sehgal·1976-)의 개인전이 열렸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텅 빈 원형 공간을 중심으로 나선형 경사로를 따라 걸으며 작품을 감상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세갈의 전시 기간 중 미술관은 작품이랄 것이 없이 텅 비어 있었다. 대신 관객을 맞이한 건 자기소개를 하며 다가와 '진보란 무엇인가'를 묻는 어린이였다. 어린이와 대화를 나누며 경사로를 걸어 올라가면 청소년·성인·노인이 차례로 자연스럽게 나타나 같은 대화를 이어간다. 최종층에 이르르면 노인은 '여기까지가 이 진보의 마지막'이라는 말과 함께 관객에게서 떠난다. 서로 다른 세대를 순서대로 만

난 관객은 성장하고 흔들리고 완성됐다 쇠락하는 인간에 대한 나름의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진보'가 무엇인지도 외닿았으리라.

세갈의 작품은 이처럼 설정된 상황 안에서 사전에 훈련받은 연기자들이 관객으로 하여금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대화·생각을 하도록 유도한다. 세갈은 이미 온갖 물건이 흘러넘치는 세상에 '미술'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물건을 더하는 것보다는, 낯선 사람과 일시적인 만남에서 얻을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미술의 의미이자 가치라고 믿는다. 환경문제에도 진심인 세갈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장거리 여행은 꺼리고, 작품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지



티노 세갈, 이면 진보, 2006년. 설정된 상황,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소장.

않으며, 종이 카탈로그를 출판하지도 않는다. 아차피 텅 빈 미술관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사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갈은 물질 없이도 뭔가를 생산하는 실험을 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가 만들어낸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주한 관계와 그 순간에만 존재했던 의미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 說

'성장' 안 보이는 공약, 경제계 건의 듣는 척이라도

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 강국',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일 잘하는 정부'를 제1 공약으로 제시했다. 성장을 추락과 관세전쟁 등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을 의식한 듯, 경제 살리기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 전략산업 국민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정부와 민간에 돈이 없어 AI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100조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발생한 상황인데, 법인세·근로소득세 인하 등 또 무작정 감세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은 중국·베트남 공장 리소어링(한국 재유치), 압도적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요한 문제이지만 기득권 집단의 저항을 넘어설 전략은 보이지 않았다.

상공회의소, 경제인협회, 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정책 제안 형식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제안' 10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정책 제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 5단체는 "이제 과거의 성장 공식이 통하지 않게 됐고 새 전략이 절실하기

국민의힘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에 35세 초선인 김용태 의원을 임명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국회 최연소 의원으로 청년 최고위원과 비대위원을 지냈다. 단일화 이전투구의 혼란과 내홍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정치인을 당의 얼굴로 내세운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각종 의혹, 당 난맥상에 대해 "빠르게 반성하며 사과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당이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고 했다. 작년 말 당의 어정쩡한 유감 표명 이후 당 대표자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사과한 것이다.

느닷없고 황당함 계엄으로 국민이 고통을 겪고 경제·안보 위기가 초래됐다. 생각지도 못했던 조기 대선으로 민주당 정권 등장은 눈앞에 두게 됐다. 그런데도 국회 대표자가 이에 대해 사과하는 데 무려 5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지금 당의 핵심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다. 김 후보는 12일에야 뒤늦게 계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후보 선출 직후엔 "수많은 국민의 합성에도 대통령은 탄핵됐고 민주당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출당에도 반대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나섰다.

때문"이라고 했다. 기존 우리 산업이 거의 모두 중국에 잡아먹히게 된 상황에서 경제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제안이다.

경제 5단체는 새 정부 임기인 향후 3~4년엔 AI 강국 도약의 골든 타임이 된다고 예상하면서, 에너지·데이터·인재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텔·AI 전환 등 3대 밸류 체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항공우주·로봇·바이오·친환경 선박 등 신산업 지원 전략을 세우고, 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만들어 전력망 확충, 전기 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책으로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신시장 거점 국가들과 신규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들이 국내외의 현정 상황을 반영해 뽑아낸, 구체적인 실용적인 정책 대안들이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하게 된다. 대선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표를 얻기 위해 국가 경쟁력을 쪼먹는 무리한 퍼주기 공약을 내놓고, 그런 공약을 실행하다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재정 적자 상황인데도 각종 포퓰리즘 공약으로 앞으로 70조~100조원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불가능한 일을 밀어붙이면 경제 암을 키운다. 대선 후보와 각 정당은 경제 분야만큼은 경제 5단체의 절박한 건의를 듣는 척이라도 했으면 한다.

대. 윤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얻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나. 또 한 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체 국민이 아니라 일부 지지층만 보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미 단일화 과정에서 국힘은 전무후무한 막장극을 보여줬다. 단일화 시너지는 커녕 기존 지지층마저 고개 돌리게 만들었다. 대선은 포기하고 당권과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벌인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국힘이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뼈를 깎는 자기 쇄신을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과감하게 단절하고 후보·지도부·의원 전원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 인적 쇄신도 중요하다. 김 위원장 임명은 끝이 아닌 첫 단추여야 한다. 대선 때 한번 써먹고 말 얼굴마담이어서 안 된다. 사람을 바꿔야 당의 체질과 행태를 바꿀 수 있다. 대선 공약과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고 청년들이 공감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대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자립든, 이권이든 개인 이익은 버려야 한다. 모든 것을 걸었다는 확실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국힘이 진짜 바뀌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국힘 30대 당 대표자, 환골탈태 시작되려나

미·중 관세전쟁 완화, 우리 발등 불은 아직 그대로

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통해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를 30%로 낮추고 중국의 대미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전기를 맞게 됐다. 우리나라 1·2위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해빙 무드가 희소식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5월 들어(1~10일) 대미 수출은 30.4%나 급감했다. 전체 수출액보다 대미 수출 감소 폭이 훨씬 크다. 우리나라가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조업 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 감소했는데, 미국으로의 일평균 수출은 9.5% 감소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1분기 통계에서도 미·중 관세전쟁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가 한국이었다. 미국에 대한 10

대 수출국 중에 올 1분기에 대미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미국 기업과 개인들 사이에 '사재기' 현상으로 중국·대만·스위스·아일랜드 등의 대미 수출은 1분기에 되레 늘었다. 그 결과 올 1분기에 미국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50% 급증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1조달러에 달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1분기에 대미 자동차 수출이 6.5% 감소했다. 증가세를 보인 일본, 독일과 달리 한국만 감소했다.

이번 관세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에 수출 절반 가까이 의존한 채 반도체, 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만 의존해온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과제가 더 절실해졌다. 수출국 다변화, 수출 기업 다변화도 시급하다. 노동 개혁, 규제 개혁으로 신산업을 키워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재명의 천적·정 반대 ... 대한민국 수호 Big 텐트 세워라!

할 수 있다, 김문수! 들어오라, 한덕수! 흥준표!

좌파 파시즘·포퓰리즘 깨부쉬라!
정책·용기, 누가 모두 갖겠나?
복합위기 해결 적임자 누구?

▲ 김문수가 이재명과 대적한다. 국회 평당원들의 투표 반란은 이재명의 천적 김문수를 선택했다. 김문수와 이재명은 대립코마나다. 정책, 인건, 텀이 등 모든 측면에서 정 반대 대적점에 서 있다. 김문수의 승리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 수호다. 김문수의 패배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의 붕괴다. © 뉴데일리

위대한 대한민국 수호하라

자, 이제 새 출발이다. 김문수란 캐릭터가 (자유대한민국 수호 진영의 새 선두·상장·얼굴)로 떠올랐다. 자유를 위한 대장정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수호할 때다.

자유인들은 왜 김문수를 신뢰하는가?
① 그는 깨끗하다 ② 투사다 ③ (진짜)다 ④ 용기 있다
⑤ 정의롭다 ⑥ 불법하고 부정(不正)하고 범죄적인 것의 정 반대·대척점·천적(天敵)이다.

위기가 김문수 불러냈다

그러나 그런 덕목만 보고 그를 긍정하는 건 아니다. (김문수 모델)이야말로 이 시대 (복합위기)가 요구하는 (바로 그 사람 / 바로 그 이름 / 바로 그 정책)이어서 그를 주목한다. 이 시대 (복합위기)란 무엇인가?

《고도기술 사회 진입을 가로막는 경제 위기 + 북한 해파리·미중 대결 시대의 안보위기 + 저출산·기후변화·사회적 약자의 문제》가 그것이다. (북한·중공·국내 좌익)은 이 위기를 (대한민국 전부의 호기(好機))로 한껏 활용한다. 김문수

이 독소(毒素)들을 치유할 최선의 처방이다.

정책 없는 용기는 공허하다. 용기 없는 정책은 무기력하다. 김문수는 그 둘을 다 갖췄다.

베네수엘라가 눈 앞에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김문수 모델)을 선용하기 위해선 그를 튼튼하고 효율적인 틀에 담아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좌파 파시즘)에 저항하는 (대한민국 수호 범민주 빅텐트)가 바로 그거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다. 이 제도는 근대 문명이 배출한 최선의 제도다. 취약점도 물론 있다. 그러나 자유 체제는 반(反) 자유 체제에 비해서 월등히 우월하다.

이런데도 이 땅엔 아직도 베네수엘라 같은 (체제주의 일당 독재 + 통제 경제 + 포퓰리즘)으로 치닫는 광풍이 온 나라를 때려로 만든다.

체제 전쟁이다, 모두 뭉쳐라

자유인들이 이 난국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면, 자유

대한민국은 폭망할 것이다. 이에 대한 투쟁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다. (체제 전쟁)이다.

이 땅의 극단 운동권은 (자유도, 민주도, 진보도 잃을 수 없는 좌파 파시즘)이다. 이에 반대하는 진영은 따라서 (평의의 민주 진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소)도 결국은 이 취지였다.

권영세·권성동은 퇴장하라. 한덕수는 오라. 흥준표도 오라. 비대위원장 김용태도 오라. 박대출 사무총장도 오라. 한동훈? 탄핵 반대 사과하라고? 글썽?

(광복(廣福) 대한민국 빅텐트)가 간다.

리뷰 글
뉴데일리 논설교론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합령으로 2025년 5월 12일 게재 되었습니다.